

자신 속 부처 찾으면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

이 법문은 현대불교신문 317호(2001년 5월 1일자)에 게재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김천 황야산에 토굴 하나 지어 수십년 간 두 분불출 정진하고 계시는 직지사 조실 관음 스님을 만나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와 수행 이야기를 들었다.
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중앙은 해발 1천여m가 넘는 황야산 중심부.
이곳을 찾아가는 길목마다 봄의 향연이 한창이었다. 길가엔 이름 모를 잡초들이 연두빛 새순을 수줍게 내밀며 천연의 웅단을 만들고, 노랑 분홍 등 갖가지 꽃들이 앞다뒀 수를 놓고 있었다.
중앙의 첫 인상은 깨끗하고 조용했다. 법당과 요사채는 암자답지 않게 웅장했지

을 덧붙이셨다.
“물은 본래 티 없는 청정한 맹물 한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물에 커피가루를 타면 커피가 되는 것이고, 된장이나 국거리를 넣어 끓이면 국이 되는 법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몸 속에 들어가거나, 땅 속에 들어가 정화되면 본래의 성질인 맹물로 되돌아옵니다. 인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따로 있다는 것을 식(識)이라고 합니다. 이 식 때문에 안으로는 육근(六根)이 생기고, 밖으로는 육진(六塵)이 생겨서 18계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육감으로 보는 것은 모두 가짜이며 허상입니다. 물이 본래 한가지인 것처럼 생명의 실상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나'라는 명제를 세우고 자꾸만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것이 내가 아니다 라는 진리를 터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밥과 국과 반

인간이 죽어서 자연의 일부가 되듯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하나의 생명체를 상일주재(常一主宰)한 진여법신(眞如法身)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불교는 생명의 실체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49년 설법은 모두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과 해답이며 이는 곧 인생 철학이라고 강조한다.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현상계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소멸과 생성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주만물이 성(成) 주(住) 괴(壞) 공(空)의 법칙에 의해 유전 하듯 인간도 생로병사의 법칙에 의해 삶과 죽음의 명암을 이룹니다.”
비록 육신은 쇠약해져 발음이 어눌하지만 끊임없이 쏟아지는 스님의 설법은 막힘도 걸림도 없었다. 모든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듯 스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자유자재했다.



교학과 선에 모두 뛰어났던 관음당 지안스님. 스님은 특히 유식학의 대가이다.

있는 내일엔 미소를 볼 수 있었다”며 “해박한 경전 지식은 물론이고 체계적인 논리 전개는 나의 학문의 허기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적이 없다고 한다. 미리 준비하는 법문은 참된 법문이 아니라는 것이 스님의 법문 철학인 셈이다. 불자들의 알음알이를 잘 살펴 그에 적합한 설법을 해 오신 스님은 불교리론 특히 유식학의 뛰어난 대가로

있는 내일엔 미소를 볼 수 있었다”며 “해박한 경전 지식은 물론이고 체계적인 논리 전개는 나의 학문의 허기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었던 적이 없다고 한다. 미리 준비하는 법문은 참된 법문이 아니라는 것이 스님의 법문 철학인 셈이다. 불자들의 알음알이를 잘 살펴 그에 적합한 설법을 해 오신 스님은 불교리론 특히 유식학의 뛰어난 대가로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에서 6년여 동안이나 두분불출하며 수행한 일은 지금도 승가에 서 회자되고 있다.
무문관이 어떠한 곳인가. 사방이 막힌 무명 속에서 모든 것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생사일여의 활로를 찾는 곳이 아닌가.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시방 세계가 거대한 무문관이며 생활이 곧 참선

6근을 지혜의 구멍이라며 나무가 뿌리를 통해 땅의 기운을 받아 성장하듯, 6근을 통해 깨달음의 씨앗인 지혜를 흡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또 자기의 본성인 법신을 파악하여 체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고 일념으로 닦아야 한다고 수행의 중요성을 말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의 함정에 속박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육체에 대한 속박은 될지 모르나 우리들 모두가 갖고 있는 자성까지 속박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법신을 막고 하고 무명과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인간적인 조건을 초극하지 못하고서는 그것을 온전히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산도봉, 대덕산과 더불어 소백산맥의 연봉을 이루는 황야산. 그 심장부에 '이 시대의 대강백' 관음 스님이 주석하고 계시어 일가 하산하는 길에 보는 산세 또한 지극히 자비스럽게 느껴졌다. 그곳에 계시는 자체만으로도 수행심이 불 일어나듯 분발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안심법문(安心法門)을 이심전심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해매기 심상이라는 것이다. 스님은 인간의

“법신 망각하면 생사 속박 못벗어나니 일념으로 닦아 깨달음의 씨앗 길러라”

만 세속의 자취라곤 어느 곳에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선계가 바로 이런 곳이었나 하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푸근해졌다.
관음 스님을 뵈고 예를 올린 후 법문을 청했다. 스님은 처음엔 “큰 절의 스님들이 잘 알지, 이 늙은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돌아가라고 손을 내저으셨다.
그러나 조용히 앉아 있자 침묵하시던 스님은 기왕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떠돌이나 듣고 가라 하셨다.
“부처님은 오신 적도 가신 적도 없습니다. 참나인 무아(無我)가 부처님인데 따로 부처님이 오시고 가시고 할게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오신 근본 이유를 살펴야 해요.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이나 수많은 설법을 했어도 '내가 한 말은 하나도 없다'고 하신 그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 속의 부처 찾은 일에 게을러서는 안됩니다. 부처님오신날 연등을 다는 의미를 되새기며 일심으로 닦아 부처를 만나는 인연이 되는 기쁜 날이 되도록 서원하십시오.”
스님은 자신 속의 부처와 하나가 되어 부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볼 것을 권한다. 마음의 눈을 뜨면 중생이 곧 부처란 예기다. 이처럼 스님께서는 우주만물의 형상만 보지 말고 그 본체의 성질을 깊이 사유할 것을 강조하셨는데 물을 비유한 설명

찬이 위에서 동화됨으로써 소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모두가 자기에게도 와서 하나로 동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에 몰두하다 보면 우주 법칙의 기운이 하나로 체화되는 묘력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무식 속에서 '나'라고 하는 강한 아상이 사그라지면 자유자재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님은 이 우주의 삼라만상을 한 생명체로 보고 있다. 불교에서 말한 법이란 곧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 법을 깨달아 인격화한 분이 부처님이란 것이다.
깨짐의 세계는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생사가 따로 없을 뿐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열반정정(涅槃靜靜)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스님은 불자들에게 이 깨달음의 세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법문이라고 말한다.
깨달음의 세계를 모르는 불자들에게 깨진 자의 입장에서 진리만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니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란 것이다. 그래서인지 스님은 정사(正思) 정념(正念)을 먼저 강조한다. 스님은 자주 법문에서 '너와 내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여러 개의 생명체는 근본적으로 독립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생명체예요.

평기받고 있다. 스님의 설교적 재능은 부처님의 제자 '부루나 존자'에 비견될 만큼 탁월하다고 한다.
한 때 스님 슬하에서 공부한 정후 스님(구미 해운사 주지)은 “스님에게서 받은 첫 인상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신라의 뛰어난 예술이 빛어낸 반가사유사에서 느낄 수

가르쳤던 일, 80년대 직지사에서 <선문열승> 강의를 열어 오늘날 각 강원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10여명의 강사를 배출한 것 등은 인양 양성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교화에도 뛰어났지만 스님은 선(禪) 수행도 게을리 하지 않았었다. 환관의 나이에

이 돼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수행론이다.
또 스님은 “참선 공부는 노장들에게 다년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덧붙이신다. 교화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쉽지만 선 공부의 글자를 떼어놓고 마음으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선지식의 가르침이 없으면 해매기 심상이라는 것이다. 스님은 인간의

손상좌 도진 스님의 '시봉 38년' 이야기

“안개가 스쳐가듯 열반에 드셨습니다”

“안개가 스쳐가듯 고요한 적멸의 세계에 들어가듯 그렇게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나 평안하고 자연스러웠지요.”
관음 스님의 만수무강한 도진 스님(중앙 주지)은 관음 스님의 입적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고요히 숨을 거두는 정도가 눈에 띄지 않고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죽음과 적멸에 이르는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관음 스님의 입적 모습을 통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던 ‘적멸(寂滅)’을 느꼈다는 도진 스님은 관음 스님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한다.
도진 스님은 18세 율주사에 출가할 때부터 약 38년 간 스님을 모셨다. 1984년 10명의 제자에게 3년간 전강을 내린 후 조용히 살겠다는 관음 스님의 서원에 따라 중앙을 복원하고 주지로 부임하여 20년간 스님과 함께 지냈다.
도진 스님은 관음 스님의 행장을 하나 하나 기억하고 있었다.
1965년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 6년 결



관음당 지안 스님이 주석했던 중앙의 '수미산방'.

무문관 6년 결사 등 생사 건 수행 '귀감' 선·교 치우침 없는 공부하라 가르쳐

승 스님, 석주 스님과 몸소 천물에 당시 웃을 뻔하거나 수행 정진했다. 젊은 남자와 탁마 정진한 안거는 드문 일로서 당시 젊은 남자들에게 공부할 심신을 불려일으킨 충분한 동기였다. 당시 수도암 암

이며 포교사였고 또 정화에 앞장섰던 관음 스님은 부처님의 경전 뿐 아니라 유학, 신학, 철학에 능통했으며, 유식학의 체계를 세운 유식학의 거봉이다. 수행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계를 지키는 삶을

살면서도 김수환 추기경이 포도주를 권할 때 기꺼이 받아 마시는 포용력까지 갖추고 있다.
늘 자비스러웠던 스님은 인자한 표정 하나만으로도 제자들의 허물을 덮어주셨고 상하 구분 없이 누구나 만나고 무엇이든 받으셨다고 한다. 심지어 개구쟁이가 장난감을 가져오면 장난감을 받아 방 한 칸에 고이 진열까지 했었다.
관음 스님은 열반계를 남기지 않았다. 도진 스님이 어른 스님께 열반송을 부탁드리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는 그림자를 낳지 않는다.” 그 말씀이 지금은 도진 스님에게 화두가 되었다.
“평소 하신 말씀이 임종까지 따로 생각할 게 없었냐”고 말하는 도진 스님은 “항상 열심히 수행하라는 당부와 수행자는 ‘정지전(正智前)’과 ‘겸손’을 가져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다”며 ‘선(禪)·교(教)에 치우치지 말라’는 가르침과 함께 늘 앉아서 수행 정진하는 모습을 보이셨다고 전했다.
배지선 기자



손상좌 도진 스님.

- #### ■ 관음 스님 행장
- 1910년 경복궁상주군외서면 출생.
 - 1929년 상주 남장사에서 해봉 스님을 계사로, 탄옹 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34년 유점사전문 강원대학교 졸업.
 - 1936년 서울 선학원에서 보살계 및 비구계 수지.
 - 1938년 중앙불교전문학교 졸업, 문경 김홍사 강사 취임, 해인사 해인유학원으로 선발.
 - 1942년 일본경도 용곡대(龍谷大) 졸업.
 - 1943년 오대산월정사서 안거.
 - 1952년 해인사백련암, 고성 옥천사 등서안거 수행.
 - 1956년 황야산직지사 조실 추대.
 - 1959년 조계사 주지 및 중앙포교사 취임.
 - 1961년 통곡학원 이사.
 - 1963년 율주사 주지.
 - 1965년 대구 능인학원 이사.
 - 도봉산천축사 무문관 6년 결사.
 - 1981년 직지사 주지.
 - 1985년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 1989년 학교법인 보문학원 이사장.
 -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 1994년~2004.28 조계종 원로회의 명예 원로.

생활이 곧 참선될때 삶과 죽음은 하나의 길



청정하고 평등한 마음의 본바탕을 깨우쳐 부처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관음스님.

이 법문은 현대불교신문 158호(1998년 1월 14일자)에 게재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법이란 진리입니다. 진리를 듣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 합니다. 과거 부처님께 서도 진상에 상상밖으로 어렵게 공부를 하셨습니 다. 어느 전생에서인가 부처님은 보통사람으로서 실천공부를 하셨습니다. 실천은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우는 에베레스트봉이 있는 히말라야를 말합니다. '히말'이란 뜻은 눈을 의미하고 '라야'는 감추다 라는 뜻으로 '눈에 파묻힌 산'이라 합니다. 인도는 열대지방이지만 산이 높아 만년설이 뒤덮여 있습니다. 또 부처님은 전생에 한 귀족의 딸을 위해 나팔에게 목숨을 바쳤는데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바칠 수 있을 것입니까. 중국의 해가대사는 달마대사로부 터 법을 가르쳐 받으려 했으나 안가 르쳐 주니 팔 하나를 잘랐습니다. 이와 같이 구도열로서 정신을 무장하는 것이 오늘 날의 한국불교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절실 합니다. 선재동자도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1백20생이나 걸렸습니다. 그 거리가 대단한 것이며 그의 구도정신을 새삼스럽게 받아지 나야 합니다. 30여년전에 조계사 주지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하도 법문을 해달라고 해서 말은 게 그럭저럭 10여년간이나 하게됐지요. 그런데 그 당시는 비구 대제 분규로 분란이 끊이지 않던 때라 염증을 느껴 조용히 머물수 있는 곳을 물색하다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無門關)에 들어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무문관에서 환갑을 맞이했으니 늦은 나이에 인연이 닿은셈이지요. 무문관은 음식물을 넣어 주는 구멍만 남겨 놓은채 사방을 다 막아놓아 외부세계와는 완전히 차단된 곳입니다. 이렇게 폐관하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요. 부처님의 6년간 실천교행을 본받아 한번들어 가면 4-6년간 일체 문밖에 나올 수 없고 면벽집선만하게 됩니다.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벽을 박치고 나오는 것은 곧 자신의 거짓된 껍질을 완전히 부수어 내외가 명철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무문관에서는 모든 것을 단순화하여 오롯이 일념으로 화두의심만 챙기는 것이니 최소한의 생활로 선

정상태를 추구하게 됩니다. 사방이 막힌 무명속에서 생사어일의 활로를 찾는 과정이지요. 엄밀히 말하면 중생들이 살아가는 시방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무문관입니다. 일평생 삶을 사는 동안 인생의 근본을 알고 사는 것처럼 소중한 일은 다시 없습니다. 또 일상의 생활자체가 곧 참선이 됩니다. 우리가 아상에서 벗어나고 집착과 결별하면 하늘과 땅과 더불어 목숨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물건에 한도 끝도 없이 부딪쳐 다치곤 합니다. 욕심을 내어 부딪치므로 쉽게 몸이 아프고 늙고 맙니다. 욕심을 내지

않고 물건에 끄달리지 않으면 그리 늙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전체의 생명과 하나될 때에는 모자라는 것도 남는 것도 없이 수명이 온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화엄경>에서 설해지는 내용입니다. 나 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주 전체의 기원과 하나되면 우주의 기원

이 자기에게 들어와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편할수록 얼굴에 덕이 있어지나 마음을 빼뜩게 지날수록 마음에 낀 그림자가 반영되어 어두운 모습이 됩니다. '얼이 빠졌다'는 말이 있는데 얼굴의 모습도 자신이 마음먹은대로 자꾸만 변화해 갑니다. 정신이 맑으면 표정이 맑아지며, 짜증스러워지면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맙니다. 평생 좋은 일을 하면 몸이 자꾸 좋아집니다. 그림을 그려도, 글을 써도, 노래를 불러도 온통 무심이되어 우주법칙 그대로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중국 중생사의 관세음보살은 우주의 축소판 그대로가 담겨있어 알지 못한 이들도 그 앞에서 기도를 하면 성취가 됩니다. 화두도 마찬가지로 깨달은 것이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집착과 망상

좋은 일을 하려거든 성품을 깨달아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네 마음자리에도 체, 상, 용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시야로 볼 수 없는 마음이지만, 지위가 높은 이거나 낮은 이거나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추위를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하는 그 마음은 누구나 평등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다 평등한 이 마음을 평등하게 쓰는 이가 드물고, 청정한 것을 탁하게 쓰기가 다반사입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마음자리는 자재(自在)합니다. 자재란 가고 싶으면 가고, 눕고 싶으면 눕는 구속됨이 없음을 일컫는 것은 모두 자재한 쓰임을 갖고 있습니다. 뒷벽이 어린이이라 할지라도 청정하고 평등하고 자재하기는 어른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린다는 이유로 그 작은 속에 부처가 들은 줄은 모르고 오늘 저놈 하며 업신여긴다면 큰일입니다.

“정신이 맑으면 표정이 맑아지고 좋은일 하면 몸이 좋아집니다”

이 모두 사라지고 우주의 기원만이 남도록 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갠 기운이 화두에 있으므로 나쁜 기운이 모두 소독되어 녹아지는 것입니다. 전인의 경우도 깨달음의 기운이 이롭게도 스며들어 관세음보살만을 염해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정진하는 가운데 깨달음은 만나집니다. 일념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에 폭발되는 것이 견성입니다. 그러나 화두만이 견성을 위한 길이 아

우리네 마음은 본바탕이 청정하고 평등하고 자재하니 이를 율게 쓰는 것이 곧 민주시주의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란 어린이든 어른이든 그 나라 백성들이 모여 하나가 통일적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계층에게 치중하거나 소외됨 없이 더하고 덜한 것없이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원리를 의지해 살아갈 때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치는 우주의 법칙과 한평가가 되어 자타가 없는 대자대비의 마음이지만 우리는 남을 좋아해도 편애를 합니다. 치우쳐 사랑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기도로서 마음을 맑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욕심을 버리면 복을 얻습니다. 욕심 집착을 버리면 우주 전체의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우주가 자기의 것이 실패를 지혜, 보리라고 합니다. 흐르는 우리의 관념을 어떻게 없앨 것입니까. 깨치지못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것입니까. 이는 흐르는 해악을 막는 일부터 시작하여 합니다. 흐르는 생각은 모르는 물건 앞에서 중단됩니다. 이는 경계를 따라 흐르기 때문입니다. 알지못함으로 인해 흐르 지 못하면 쌓이고 쌓이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확트입니다.

아상에서 벗어나면 우주와 한 덩어리

화두는 집착·망상 벗고 ‘갠 기운’ 받는 것

아야 하며 그 속에서 생사어일의 활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평상심(平常心)이 곧 도(道)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오래 살면 모습이 닮는다고 합니다. 염불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꾸 익힘으로써 한가지만을 생각하게 되면 완성이 됩니다. 글 쓰고 조각하는 이들이

않고 물건에 끄달리지 않으면 그리 늙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전체의 생명과 하나될 때에는 모자라는 것도 남는 것도 없이 수명이 온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화엄경>에서 설해지는 내용입니다. 나 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주 전체의 기원과 하나되면 우주의 기원

관음 스님의 저서 <화엄의 바다>

지난 2월 28일 원직에 든 관음 스님은 수많은 설법으로 후학양성에 매진했지만 책은 단 한권만을 남겼다. 1993년 10월 펴낸 <화엄경> 강설집 <화엄의 바다>가 바로 그것이다. 1980년대 적지사에서 '선문염송' 강의 틀 여는 등 인제 양성에 앞장 선 관음 스님은 90년대 초, 노구(老龜)로 자주 법상에 오르지 못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당시 조계사 주지 법등 스님(구미 도리사 주지)이 '조계사 화엄산림법회'를 열어 스님께 법을 청했고, 그 때 강의를 녹음(기록한 자료를 정리하여 전강제자 시현 스님과 손주상좌 도진 스님이 책으로 엮어 펴낸 것이다. 이 책을 엮은 도진 스님은 서문에서 "보다 많은 불자들이 <화엄경>과 인연을 맺고 보살도를 이루길 바라는 마음에서 책으로 묶었으나, 부족하고 학문이 얕은 저로서는 큰스님의 깊은 사상을 온전히 표현하는데 역부족이었다"며 "고르지 못한 문패이나 내용은 스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제자들의 허물이다"고 밝히고 있다. 관음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집대성한 것이 <팔만대장경>이라면 대장경 가운



관음스님의 저서 <화엄의 바다>는 화엄경의 가르침을 쉽게 전하고 있다.

데 진수는 단연 <화엄경>이라며 "시공을 초월해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세계를 묘사한 <화엄경>은 자기의 기준을 떠나 실상의 세계를 보는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조금이나마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엄의 바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

조계사 화엄산림법회 강의 내용... 화엄경 이해 지름길

간(智正覺世間)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2장 '화엄경의 구성'에서는 <화엄경>의 종류와 이를 설한 때와 장소, <화엄경>의 본래 이름인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에 담긴 뜻을 쉽게 설명해 놓았다. "대방광불화엄경"이라는 제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의

품>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은 후 이에 대한 스님의 강의를 풀어 놓은 것이다. 300여 페이지의 분량에 달하는 강의에서 스님은 다양한 비유와 일화를 통해 경전에 담긴 뜻을 알기 쉽게 풀어 그 가르침의 핵심을 바로 볼 수 있게 도와준다. "우주의 법칙인 본체를 알면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법(理

화엄경>의 깊은 의미를 함축해 지은 계송인 '법성계(法性關)'를 실어 이해를 돕는다. "부처가 되는 길은 멀고 한량없는 시간이 걸리지만, 마음에서 보리심을 발하면 그때부터 부처의 행동이 나온다"고 말하는 스님은 불자들에게 육바라밀의 실천과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한다. "마음속에서 일체의 탐심을 털어내 버리면 산 속에 금이 들어있는 것을 환하게 볼 수 있고, 생명을 해롭게 하려는 생각을 멀리하면 만물이 환히 보이고 서로 동화되는 것입니다. 금강석 자체에는 타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불에 넣어도 타지 않는 것과 같이, 내 속에 탐을 해하거나 욕심을 내려는 생각이 없다면 일체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화엄경>의 도리가 이처럼 법계성(法界性)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나가는 것도 이와 같아서 선부른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부지런히 닦아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한편 스님의 가르침은 불교카세트포교회가 발간한 오디오 테이프 '무문관대강좌 1, 2'와 '반야심경강의', '유식론대강좌' 등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다.

대의·구성·입법제품 등 세부분으로 해설

“우주 법칙인 본체 알아 부처경지 이르라”당부

'대방광' 3자는 우주의 대진리인 법의 체·상·용을 설명한 말씀이며, '불화엄경'은 스스로의 마음을 닦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경지를 나타낸 말씀입니다. 이처럼 <화엄경>의 이름 자체가 깨달음의 세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경 전체를 읽고 어우는 것도 좋지만 경의 제목 일곱 자만 수지독송해도 큰 공덕이 있습니다." 3장 '화엄경 입법제품 강'의 선재동자의 구도행을 담고 있는 <화엄경입법제

법>이라 하고 부처님이 이를 깨달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설법하신 것을 교법(敎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법은 깨달으신 바를 그대로, 즉 우주법칙을 있는 그대로 설한 것이기 때문에 이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화엄경>의 방대한 가르침이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거나 별레가 찌르르 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엄경> 자체가 우주법칙의 진리를 그대로 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 뒤편에는 신라 고승 의상 스님이 <